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TRADE FOCUS

2018년 41호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한 · 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

2018년 11월

전략시장연구실

김현수 연구원

조의윤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I. 연구 배경	01
II.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03
III. 한국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10
IV.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	18
V. 결론 및 시사점	2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김현수 연구원  
조익윤 연구원

(02-6000-5188, bemy1004@kita.net)  
(02-6000-5263, jjoy1227@kita.net)



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대중 투자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실시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큰 상황으로,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는 ‘차이나플러스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일본은 과거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생산기지 구축과 현지 시장 진출에 나서다가, 2010년대에 들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경제 관계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 인도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차이나플러스 원’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태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투자는 점차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국으로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태국플러스 원’으로 이어졌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 시장과의 경제협력과 투자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중국에서 수출용 제조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2010년대에는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에 달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심화되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유통,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이 타격을 입었다. 교역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1~9월 대중국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14%, 20% 증가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부각된 나라는 베트남으로, 한국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전기·전자 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은 모두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생산기지 구축 및 현지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인도에 삼성전자, 도요타 등 양국 대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모두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경제 교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취한 차이나플러스 전략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은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신시장 개척과 국제 시장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과제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현지 사업 기회 창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분업 체제를 구축하여 역내 유망 시장으로 진출을 다각화하는 등 수출다변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일본보다 높아 차이나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외교 갈등이 발생한 경과가 비교적 짧고 향후 남북관계, 미중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관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통상 정책 운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양국의 대외 관계가 경제 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해 효과적인 수출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흥 시장에 대한 경제 인프라 부문 원조를 늘리고 이와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수출다변화 정책 추진 시에도 명확한 세부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세에 맞춰 역내 진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투자와 면밀한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문





## I. 연구 배경

### ■ 對중국 투자 여건이 변화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크게 부상

- 2010년대 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대중 투자 여건 악화
-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중국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차이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對중 수출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며, 2004년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최대 무역국 지위를 유지해왔음
- 2016년 한-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응해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실시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
  - 중국 의존도를 완화함으로써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통해 한국보다 앞서 차이나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 일본은 중국 내 생산비용이 급증하자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 발굴에 나섰다으며,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차이나플러스 원’ 움직임 본격화
  -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중국 내 반일 시위 및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

■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하며, 특히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수출다변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특성상, 수출다변화를 모색하는 지역 또한 아세안이나 인도 등으로 비슷함
- 하지만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은 만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
  - 일본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한 방안을 참고하고, 한국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수출다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향후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차이나플러스 전략이 요구됨

-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중국의 국산화 정책과 산업 고도화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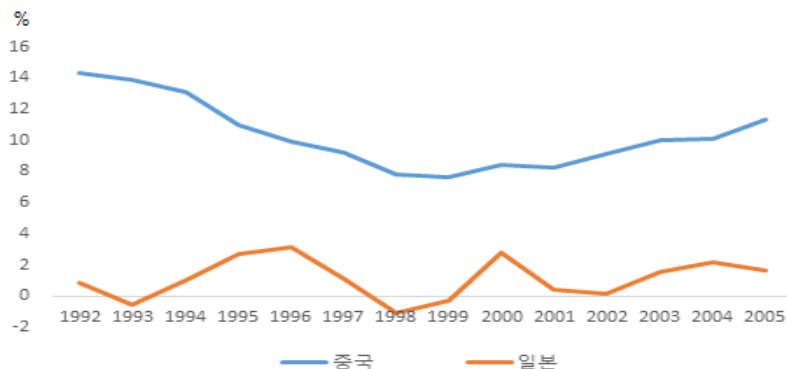
## Ⅱ.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 ① 중-일 경제협력 및 ‘차이나 리스크’ 대두 배경

#### ■ 일본은 내수 침체와 불황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

- 1990년대 일본경제는 극심한 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며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동력 둔화
- 일본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생산기지과 신규 소비시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

<1992~2005년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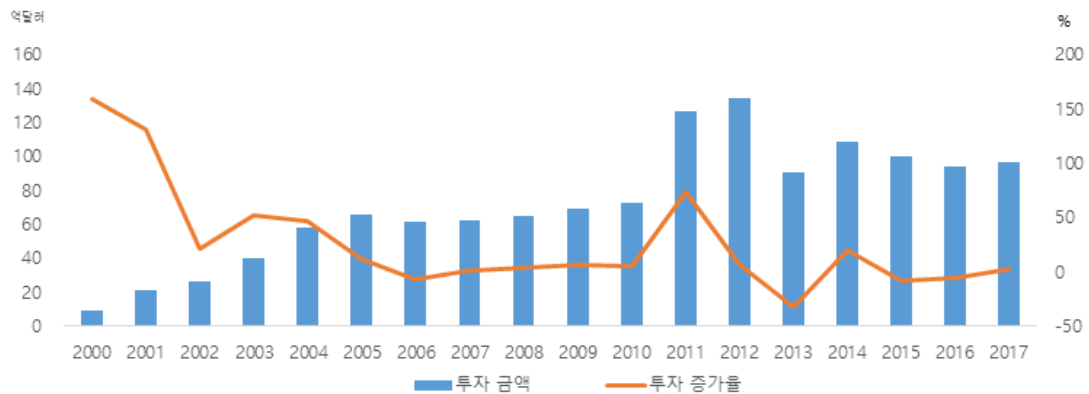
- 일본의 對중 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
- 2000년 9.3억 달러였던 일본의 對중 직접투자는 2005년 65.8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4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의 對중 직접투자 금액은 134억 달러를 상회하며 2000년대(2000년~2017년) 최대치 기록

- 일본의 對中 수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일본의 對中 수출은 13조 9백억 엔을 기록해 2000년(3조 2천 7백억 엔) 대비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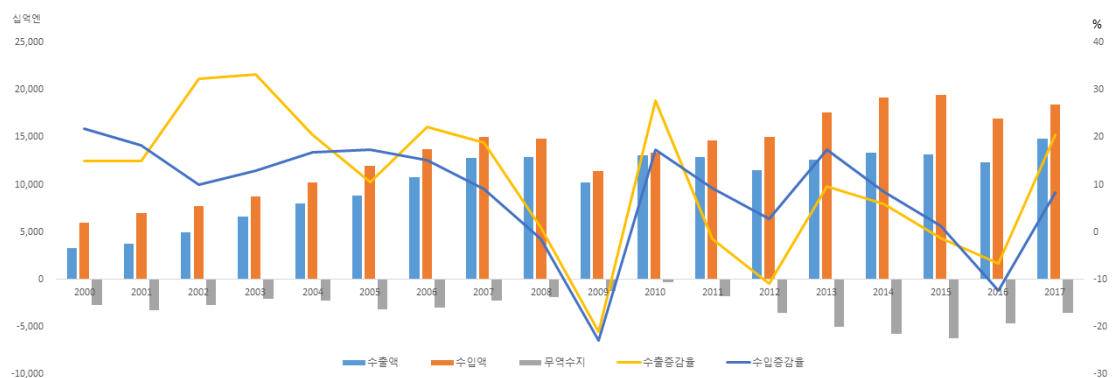
- 2000년 6.3%에 그쳤던 對中 수출 비중은 2009년 18.9%를 기록해,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16.1%)을 제치고 수출규모 1위 국가가 됨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자료 :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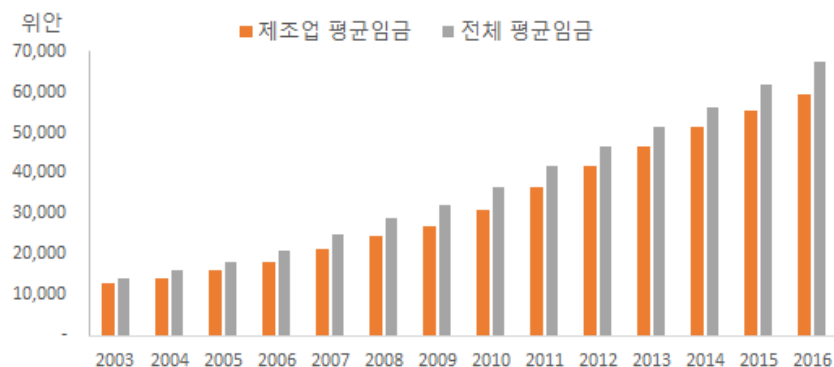
<일본의 對中 수출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일본은 중국 내 생산비용이 급증하자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 발굴에 나섰다으며, 센가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차이나플러스 원<sup>1)</sup> 움직임 본격화
- 중국 도시지역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건비 급증
  - 2003년 12,671위안이었던 제조업 평균 임금은 10년간 연평균 13.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46,431위안을 기록

<중국 도시지역의 평균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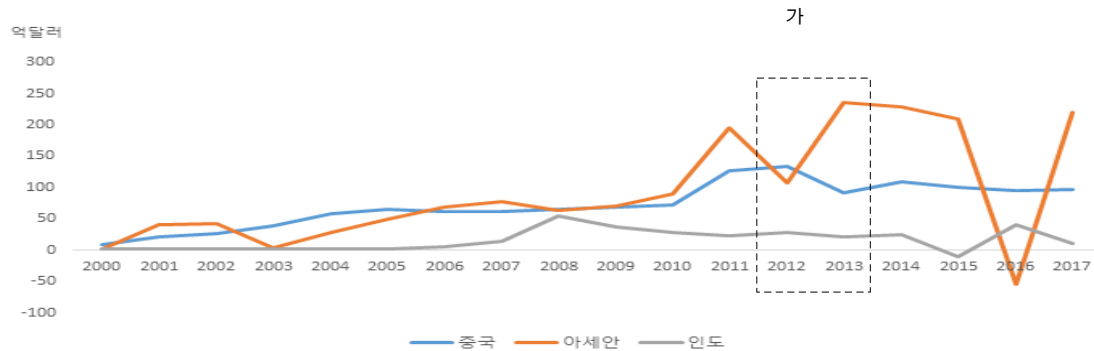
자료 : 중국통계국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성장성 저하 등을 체감한 일본기업은 2000년 중반부터 아세안 등 신흥 시장으로 진출 확대
  - 2006년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69억 달러를 기록하며 對중 직접투자(62억 달러)를 상회
  - 對인도 투자 역시 2006년 5억 달러에서 2008년 56억 달러로 급증
- 2012년 9월 일본이 센가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중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對중 투자 급감
  - 일본제품 불매 운동, 일본공장 파손 등 반일시위 격화로 중국진출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거나 철수하면서 2013년 일본의 對중국 투자는 전년 대비 32.5% 급감한 91억 달러를 기록

1) 중국에 집중되었던 생산 기지를 아세안, 인도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의미(출처 : JETRO)

- 이에 반해 2013년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對중 투자액을 상회

#### <일본의 중국, 아세안,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주 : 2016년은 일본 기업들이 싱가포르로부터 일시적으로 투자를 회수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직접투자가 -1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감소

자료 :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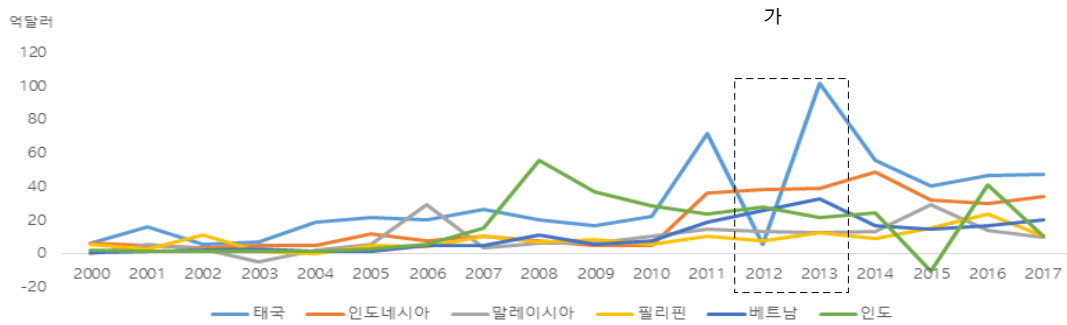
## ②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전개

### ■ 센가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원'은 태국을 중심으로 진행

- 일본의 對태국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13년 102억 달러를 기록해 인도네시아(39억 달러), 말레이시아(13억 달러), 베트남(33억 달러), 인도(21억 달러)로의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
  - 2013년, 태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금(159억 달러)의 60% 이상이 일본으로부터 유입<sup>2)</sup>
- 태국은 도로·철도·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이 용이. 일본기업은 가공된 완제품을 아시아 주요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음
  - 자동차생산업체(닛산, 도요타, 혼다)와 전기전자업체(도시바, 캐논, 니콘) 기업의 태국 진출이 두드러짐
    - \* 닛산자동차는 태국에 2.7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20만대 규모의 공장을 신설

2) 출처 : 태국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 <일본의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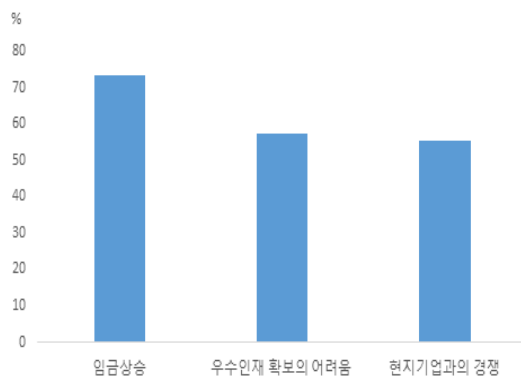
자료 : JETRO

■ 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높은 제조원가에 부담을 느낀 일본 기업은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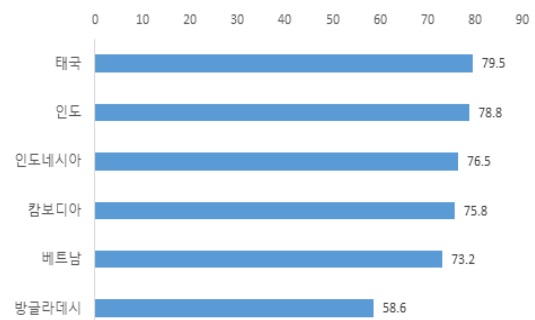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 2013년 실시한 ‘재(在)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태국에 투자 진출한 경영자의 73.4%가 종업원의 임금상승을 경영사의 문제점으로 지적

－ 동 조사에서 일본의 제조원가(100) 대비 태국의 제조원가는 79.5로 나타나 인도 (78.8), 인도네시아(76.5), 캄보디아(75.8), 베트남(73.2)의 제조원가를 상회

### <태국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



### <일본 제조원가(100) 대비 현지 제조원가>



자료 : JETRO(2013)

- 태국 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증가
  - 일본의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7.5억 달러에서 2017년 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출은 같은 기간 65억 달러에서 152억 달러로 증가
  - 초기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조립,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분에 집중되었다가,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베트남 현지에 중화학공업 기반을 조성<sup>3)</sup>
- 일본 기업은 태국에 핵심 생산라인을 그대로 두고, 태국의 인접국이면서 인건비가 저렴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 노동집약적 공정을 이관하는 ‘태국플러스 원’<sup>4)</sup> 추진

#### 캄보디아 진출 사례

전기모터를 생산하는 미네베아는 2012년 생산 공장을 태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전,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13년에는 제2공장, 2016년에는 제3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2천3백만 달러에 달함. 프놈펜 공장에서는 태국 지사로부터 부품을 전달 받아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해 전기모터를 조립<sup>5)</sup>

#### 라오스 진출 사례

도요타 방직은 2014년 560만 달러를 투자해 라오스 사완나켓에 자동차용 시트커버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태국의 생산 공정을 전부 라오스로 이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 라오스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및 무역 결제를 담당하는 태국지사로 운송되어 태국 내 거래처에 납품되거나 제 3국으로 수출됨<sup>6)</sup>

3) 출처 : LG경제연구원(2015)

4) ‘태국플러스 원’은 2013년을 기점으로 JETRO, 일본종합연구소(JRI) 등 다수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표현을 인용

5) 출처 : JETRO(2013)

6) 출처 : 도요타방직



■ 최근 일본기업은 新동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 중인 인도에 높은 관심을 갖고 對인도 진출 전략을 강화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매년 실시하는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산업 전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진출 유망국 1위로 선정됨
- 응답 기업들은 인도를 진출 유망국으로 꼽은 이유로 현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 규모, 저렴한 노동력 등을 들었음
- 일본의 2014년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액은 24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21.5억 달러) 대비 11.9% 증가

<일본 제조기업의 진출 유망국 응답률 변화 추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위	인도(45.9%)	인도(40.4%)	인도(47.6%)	중국(45.7%)
2위	인도네시아(45.7%)	인도네시아(38.8%) 중국(38.8%)	중국(42.0%)	인도(43.9%)
3위	중국(43.7%)	.	인도네시아(35.8%)	베트남(38.1%)
4위	태국(35.3%)	태국(30.7%)	베트남(32.7%)	태국(34.5%)
5위	베트남(31.1%)	베트남(27.5%)	태국(29.4%)	인도네시아(33.1%)

주 : 각 응답 기업은 중기적 관점(3년)에서 진출 유망한 5개의 국가를 선택  
 자료 :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 보고’, 일본국제협력은행(2014~2017)

- 일본은 인도에 대한 장기적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경제 교류 기반을 마련
- 일본은 2011~2015년 인도에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한 국가로, 5년 간 연평균 15억 달러<sup>7)</sup>의 원조를 제공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여와, 의료서비스 분야 등 무상원조를 통해 꾸준히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

7) 총공여액 기준(출처 : OECD, 일본외무성)

### Ⅲ. 한국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 ① 한-중 경제협력 및 ‘차이나 리스크’ 대두 배경

##### ■ 2000년대 이후 對중 교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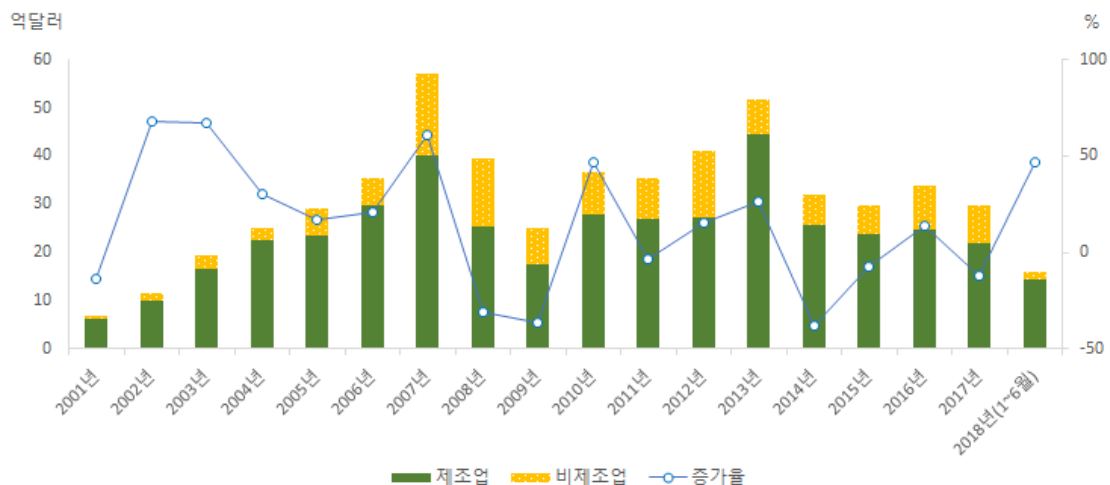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용 제조품을 생산하려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
  - 2002~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중 5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많은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수출촉진’과 ‘저임 활용’을 꼽았음
  - 동기간 수출은 컴퓨터·무선통신기기·자동차 등 부품,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위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무역 흑자폭도 확대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對중 투자 여건 변화
  - 금융위기 이후 對중 투자는 2008~2009년 연속해서 3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이후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10%대로 하락
  -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 활용 목적의 해외투자가 크게 줄고,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가 증가

##### ■ 對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사드 배치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면서 차이나플러스 전략의 필요성 대두

- 2010년대에는 對중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25% 내외를 차지하는 등 무역 의존도 심화
  - 중국이 한국산 소재, 부품 등을 조립·가공해 수출하는 수직적 생산 분업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중간재가 對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 이에 따라 2014~2015년 중국의 해외 수출이 둔화되자 한국의 對중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임
- 2016년 7월 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차이나 리스크 가시화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유통, 관광업 등 서비스업과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일부 제조업에 타격
- 롯데마트는 세무조사, 소방점검 등 당국의 조치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매출 피해를 봤으며, 베이징 및 상하이 점포 70여 개를 현지기업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2016년, 2017년 각각 -22.3%, -38.6%로 감소했으며,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10.4%에서 2016년에는 8.1%, 2017년에는 5%로 하락<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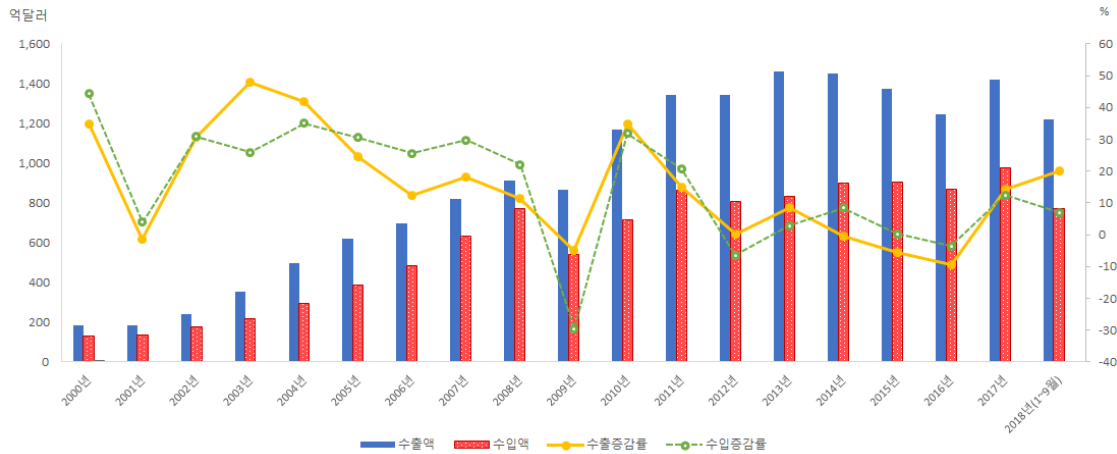
<한국의 對중 직접투자 추이>



주 : 수치는 투자금액 기준(유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8) 출처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 <한국의 對中 수출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 2015~2016년 감소했던 對中 수출은 2017년부터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위주로 증가세 회복

- 2015년, 2016년 對中 수출증감률은 각각 -5.6%, -9.3%를 기록
  - 중국의 대외 수출이 2015년 -2.7%, 2016년 -6.4%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 2017년에는 對中 수출이 전년 대비 14.2% 증가했으며, 2018년 1~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하는 등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
  - 2017년 중국의 대외 수출이 6.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해외수출용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회복
  - 우려와 달리 화장품 수출도 증가했는데, 이는 화장품 산업의 매출 감소가 수출보다는 면세점, 로드샵 등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 판매의 급감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은 중국 현지 조달이 늘면서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

### <우리나라의 對中 15대 수출 품목>

(단위 : 억달러, %)

	품 목 명	2016년		2017년		2018년(1~9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반도체	242.4	-12.9	393.5	62.3	397.0	48.1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8	-15.9	148.7	-20.0	90.2	-21.8
3	석유제품	45.9	3.9	64.5	40.4	70.5	56.4
4	합성수지	60.9	-3.6	70.3	15.5	58.1	13.3
5	석유화학중간원료	58.5	1.0	69.8	19.4	51.9	-0.4
6	무선통신기기	63.0	-18.3	62.8	-0.3	33.0	-21.3
7	기초유분	28.2	1.4	40.1	41.9	29.5	-2.3
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2.8	-1.9	19.1	48.8	29.1	116.4
9	컴퓨터	30.3	-8.2	26.4	-12.8	25.3	35.5
10	광학기기	21.8	-2.9	29.1	33.3	22.8	17.4
11	자동차부품	56.7	-12.3	34.7	-38.8	22.2	-10.7
12	철강판	28.0	5.2	30.0	6.3	22.1	-1.6
13	정밀 화학원료	19.7	17.6	23.9	21.5	20.9	26.3
14	플라스틱 제품	25.6	3.1	24.3	-4.9	20.2	10.2
15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6.0	32.9	19.6	22.7	20.0	48.1
	총 계	1,244	-9.3	1,421.2	14.2	1,219.0	19.9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② 한국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전개

### ■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부각되는 국가는 베트남

- 2010년대에 한국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및 교역이 전기·전자제품 위주로 크게 증가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에 이은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
  - 1990년대에는 섬유 의류 가공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2000년대에는 두산 중공업, 효성, 포스코 등 대기업의 중화학공업 부문 진출이 많았다면, 2010년대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투자가 급증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2018년 6월 누적 기준 193억 달러로 투자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많으며, 이 중 제조업 부문 투자가 약 61%<sup>9)</sup>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에 유입된 해외투자의 18.5%를 차지(2018년 7월 누적 기준)

9)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삼성과 LG는 베트남에 휴대폰, TV 등 주력 제품의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판매 및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음
  - 삼성전자는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두 곳의 휴대폰 공장에서 전 세계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량의 40%를 생산. 삼성 제품의 수출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이 16만 명에 달함
  - LG전자는 하이퐁에 위치한 통합 생산 공장에서 TV, 휴대폰,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최근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도 하이퐁에 OLED 패널 및 편광판 생산 공장을 완공하면서 그룹 차원의 생산거점을 구축
- 2017년 對베트남 수출은 478억 달러로 2014년 224억 달러에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도약
  -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
  - 2015년 한-베트남 FTA 체결로 교역 및 투자에서 각종 관세·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 교류가 더욱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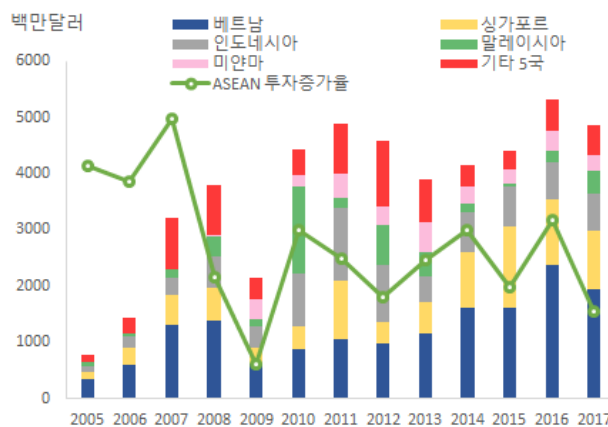
## ■ 베트남 이외에 한국 진출이 증가한 지역은 기타 아세안 회원국과 인도

-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2위 교역 대상으로, 2017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 6개국\*이 한국의 수출대상국 20위권에 속함
  - \* 수출 순위: 베트남(3), 싱가포르(9), 필리핀(11), 인도네시아(13), 말레이시아(15), 태국(16)
-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후 한국 기업들은 아세안의 지리적 인접성과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진출
- 2017년 對아세안 수출은 9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6%에 달하며, 이 중 對베트남 수출이 약 50%(478억 달러)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117억 달러)와 필리핀(106억 달러)이 뒤를 이음
- 2018년 6월까지의 對아세안 누적 투자는 58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국은 베트남(193억 달러), 인도네시아(105억 달러), 싱가포르(105억 달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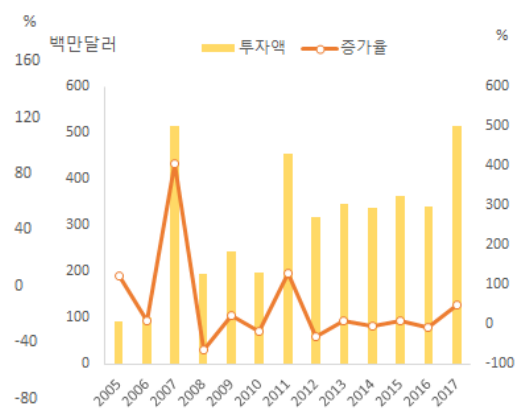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부터는 對인도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가

- 2018년 6월까지의 對인도 누적 투자는 총 55억 달러이며, 이 중 제조업 부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47억 달러)
- 對인도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
-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을 연 1억2,000만 대 생산규모로 증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며, 현대자동차가 현지화 전략으로 자동차 시장 2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기아자동차가 현지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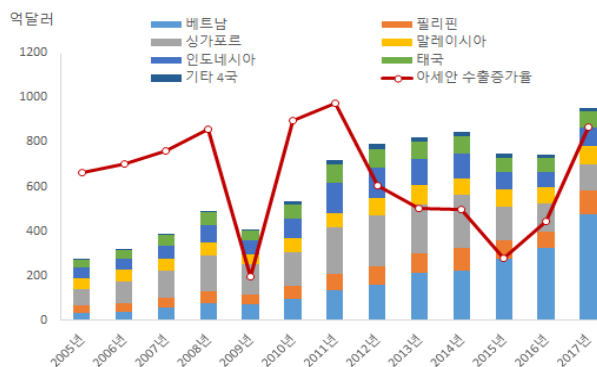


<對인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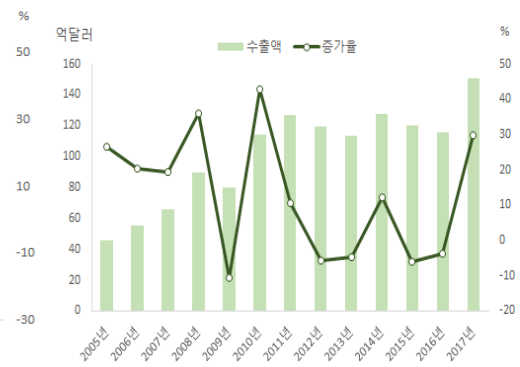


주 : 수치는 투자금액 기준(유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對아세안 수출 추이>



<對인도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 한국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시장 다변화 추진

-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
  - 그 일환으로 인도와 아세안(신남방),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신북방)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함
- 아세안에서는 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력, ② 산업·에너지 ODA를 통한 지속적 협력 확대 기반 마련, ③ RCEP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
- 인도와는 ① ICT·에너지·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협력, ② 조선업 밸류체인 분석, 완성차 업체 연계 부품업체 동반진출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 활로 개척, ③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주요 협력 방안으로 설정
- 2017~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을 차례로 국빈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 아세안과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를, 인도와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교역 목표 설정

## ■ 하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중·일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서도 경쟁 심화

- 인도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17%에 달하며, 특히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70%를 상회하는 등 압도적인 우위
  - 그동안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샤오미, 화웨이, 비보 등 중국 저가브랜드의 맹추격을 받고 있음
  -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71.7%인데 반해 한국산은 3.6%에 불과<sup>10)</sup>



-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각각 23%, 10%로 높은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5%로 7위
  -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32%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나, 현대차 및 기아차의 판매는 거의 없음
  -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모두 높으며, 특히 중국산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 중
- 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투자 증가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누적 투자 기준으로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615억 달러)가 일본(559억 달러)보다 많으나, 최근 일본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2017년과 2018년 1~7월에 각각 91억 달러, 69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한 1위 투자국이었으며, 동 기간 한국은 각각 85억 달러, 55억 달러를 투자해 2위 기록
  - 수입 시장에서도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7.6%로 1위(582억 달러)이며, 한국은 22.1%로 2위(467억 달러)에 머물러 있음

---

10)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8, 「주요 신흥 Big 4 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분석」

## IV.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

### ①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공통점

#### ■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전개

- 한·일 기업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생산기지 구축 및 현지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권으로, 젊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
  -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 이후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인프라 연계 확대 등 역내 경제통합이 추진되면서 시장 접근성 향상에 대한 한·일 기업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인도는 세계 인구 규모 2위(13.7억)의 방대한 신흥 시장으로 한·일 양국 모두 진출 의사가 높음
  - 인도의 2017년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세계 6위이자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3위
  -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3년간 7%대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과 시장 규모 측면에서 모두 진출이 유망함

#### ■ 차이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

- 한국과 일본은 對중 의존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음

- 2010년대 초반의 분쟁 이후 일본의 對중 투자는 감소세이나, 2013~2017년 5년간 중국에 연평균 98억 달러를 투자해 동 기간 태국(58억 달러)과 인도네시아(37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크게 상회
-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신닛테츠스미킨(NSSMC)은 2013년 중국에 2.7억 달러를 신규 투자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서 자동차강판 생산을 본격화<sup>11)</sup>
- 한국도 2017년 對중 투자증감률은 -12%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8년 상반기에는 총 16억 달러를 투자해 전년 동기 대비 46.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투자 회복세를 나타냄
- LG화학은 2018년 총 2조 원을 들여 중국 난징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신규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양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과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sup>12)</sup> 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일본은 2018년 8월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방중으로 중국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한 데 이어, 10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제 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 지원 등을 논의
  - 2018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 ICT 분야 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

11)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3)

12) 출처 : 외교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 ②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차이점

■ 한국은 무역의존도와 對중 교역 비중이 일본보다 높아 차이나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

-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대외 무역의존도는 68.3%로 일본(34.5%)의 두 배에 달하며, 내수 소비 및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외 무역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
- 한국의 對중 무역의존도는 22.8%로, 일본(21.7%)보다 약간 높은 편
  - 한국의 對중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는 각각 24.8%, 20.5%로 중국이 수출입에서 모두 1위 대상국
  - 일본의 對중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는 각각 19.0%, 24.5%로 중국은 수출 대상국 2위이자 수입대상국 1위
- 한국의 GDP 대비 對중 무역 비중은 15.6%로 일본(7.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그만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큼

<2017년 한·일 대외 및 對중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대외 무역의존도	총수출 / GDP	38.3	17.7
	총수입 / GDP	30.0	16.8
	대외 무역의존도 = 총수출입 / GDP	68.3	34.5
對중 무역의존도	對중 수출 / 총수출	24.8	19.0
	對중 수입 / 총수입	20.5	24.5
	對중 무역의존도 = 對중 수출입 / 총수출입	22.8	21.7
GDP 대비 對중 무역 비중 = 對중 수출입 / GDP		15.6	7.5

주 : 수출입은 통관 기준, GDP는 명목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KOSIS, ESRI

## ■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차이나 리스크를 인식하고, 對중 의존도 개선을 위한 대외정책을 수립 및 시행

- 아베 정부는 2013년 6월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고 일본의 산업기반 강화, 신시장 개척, 국제 시장 확보 등을 위한 경제 정책 발표
  - 이 중 ‘국제활동 전개전략’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 추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중소기업 진출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 수립
  - 과제별로 FTA 활용률, FDI 및 수출액 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액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이행률 점검과 목표치 재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해외 희토류 개발권 확보,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하여 對중 의존도 완화에 나섬
  - \*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이며 중국이 최대 매장량을 보유
  - 2010년 센가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태로 중국이 對日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면서, 희토류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했던 일본 IT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음
  - 일본은 억류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등 중국과의 갈등 완화에 나서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호주, 인도 등지에 희토류 개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의존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춤
  - 또한 2012년 미국, EU와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2014년 중국의 패소가 확정됨

- 이에 비해 한국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경과가 비교적 짧음
  - 2017년 하반기 한-중 정상회담 성사, 2018년 2분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경색되었던 양국 간 교류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이나, 향후 남북관계,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일본은 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ODA(공적개발원조), 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내 분업 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다변화 전략의 저변 확대

- 일본의 2017년 순공여액은 115억 달러로 세계 4위이며, 1991년부터 10년 간 세계 ODA 규모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활발하게 진행해 옴
  - 일본은 인도, 아세안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이 높고,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연결하는 남부경제회랑, 미얀마 필라와 경제특구,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등 경제 인프라 위주로 원조
  - 정부 차원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협력을 기업의 인프라 수출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에 대한 현지 선호 제고와 사업 참여 확대의 기회로 삼음
- 이에 비해 2017년 한국의 순공여액은 22억 달러이며, 2017년의 총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중이 0.14%로 일본(0.23%)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의 ODA는 무상 원조의 비중이 높고 보건, 교육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
  - 또한 인도는 ODA 공여 국가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8국과 EU 회원국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ODA 공여가 불가능함

-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에서 나아가 ‘태국플러스 원’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내 유망 시장으로 진출을 다각화하는 반면, 한국의 투자는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집중
  - 일본은 태국의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인건비가 저렴한 라오스, 미얀마 및 캄보디아로 이전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 조달 비중을 높여 왔으며, 최근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
  - 반면 한국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 투자가 다소 증가한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이 미흡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물류망, 정보통신 등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수요가 커질 전망
  - 아세안 내 인프라 투자 경험이 많고, ODA 공여액이 많으며 이미 역내 분업 체제를 갖춘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

## V. 결론 및 시사점

### ■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및 對중 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사전 준비가 필요

- 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등 對중 투자 여건 악화에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이나플러스 전략의 필요성 대두
- 일본은 한국에 앞서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비슷한 분쟁을 경험
  -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하여 희토류 금수 조치와 일본 기업 표적 단속 등 경제 제재로 대응한 사례가 있음
- 향후 중국의 외교·통상 정책 운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양국의 대외 관계가 경제 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제 교류에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 분석해 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국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또한 RCEP 및 한·중·일 FTA 체결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기 체결된 한·중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통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교류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함

###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전략적인 수출다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차이나플러스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베트남으로 최근 3년 간 수출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기타 아세안 시장과 인도로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음



-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권역별로 ODA를 통한 협력 기반 마련과 FTA 추가 협상, 신산업 분야 협력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
-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적극적으로 신흥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어, 향후 현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 앞서 대중 의존도 완화에 나선 일본의 경우, 체계적으로 수출다변화 전략의 기반을 마련해왔음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 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힘써왔으며, 장기적인 원조를 통해 수원국과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쌓았음
  - 또한 과거 일본 기업들의 아세안 지역 진출이 태국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접국과 수직적 분업 체제를 구축하면서 투자를 다각화
- 한국은 점차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출 지역 다변화에 힘써야 함
  - 정부 차원에서 신흥 시장에 대한 경제 인프라 관련 원조를 늘리고 이와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수출다변화 정책 추진 시 명확한 세부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현재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세에 맞춰 역내 진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수출 품목 다변화가 매우 중요

- 반도체,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한국의 기술력이 앞선 품목은 사드 갈등에 관계없이 수출 증가

-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 부품은 중국의 생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드로 인한 경제 관계 경색 시에도 對中 수출 급증
- 최근 중국이 산업 고도화 및 국산화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새로운 위기를 맞음
  - 최근 중국은 ‘신창타이\*’, ‘제조 2025\*\*’ 등 정책을 내걸고 산업 고도화 및 중간재 국산화에 나서고 있음
    - \*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고도화, 내수소비 진작,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제 정책
    - \*\* 기존의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기술, 바이오 의약, 로봇 등 10대 산업을 육성하고, 2025년까지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생산기술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및 신흥 시장에서 한·중 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투자와 면밀한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 여건 조성 필요
- 면밀한 해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출 품목 다변화에 나서야 함
  -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을 의약품, IT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로 다변화하고, 진출 유망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

## [참고자료]

### ·문헌자료

김남규 외, 2016,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한국무역협회  
김영선, 2017, 「新남방정책-‘포스트 차이나’ 아세안을 잡아라」, POSRI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일본재흥전략 분석」  
산업부, 2018, 「무역통상진흥시책」  
산업연구원, 2017,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  
송상규, 2018, 「일본의 ODA 현황과 인프라 수출전략」, KDB국제금융  
이근화 외, 2015,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이은미 외, 2017,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일본 경제산업성, 2013, 「일본재흥전략」  
일본산업경제연구소, 2017, 「중견중소기업의 차이나플러스원 전략」  
정형곤 외, 2018,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KIEP  
JETRO, 2013, 「아시아 국제분업구조 전개」  
JETRO, 2014, 「일본기업의 아세안 진출과 차이나플러스원의 방향」  
KOTRA, 2017,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LG경제연구원, 2015, 「일본 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 전략 재조정」  
OECD, 2018,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2018」

### ·웹사이트

도요타방직, <https://www.toyota-boshoku.com>  
베트남 투자기획부, <http://www.mpi.gov.vn/en>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http://cpi.ajou.ac.kr>  
외교부, <http://www.mofa.go.kr>  
한-아세안센터, <https://www.aseankorea.org>  
IDC, <https://www.idc.com>  
Indonesia Investments, <https://www.indonesia-investments.com>

JBIC, <https://www.jbic.go.jp/en>

JETRO, <https://www.jetro.go.jp>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 ·언론기사

김명수 외, 2017. 12. 4, “LG 이어 삼성·SK 가세…하이퐁에 한국發 스마트공장 바람”, 매일경제

김미경, 2018. 3. 15, “한국기업 ‘베트남 산업 지도’ 바꾼다”, 이데일리

김수혜, 2017. 12. 5,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중국 보복에 투자 다변화로 맞서”, 조선비즈

김양혁, 2018. 7. 16, “제네시스, 중국서 만든다...현대차 고급차 첫 해외생산 기지 중국 ‘낙점’”, 디지털타임스

박석원, 2017. 12. 31, “일본 “새해 중국과 관계 개선” 로드맵”, 한국일보

박정일, 2017. 12. 13, “베트남 경제 이끄는 삼성-LG… 한국보다 더 많은 16만 명이”, 디지털타임스

박정현, 2018. 8. 23, “이마트, 사드 보복에 20년만에 중국사업 포기…롯데도 철수 검토”, 조선비즈

서승욱, 2017. 12. 31, “한국과는 위안부 갈등 일본,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올인”, 중앙일보

서영아 외, 2017. 3. 18, “대응 자제하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1년만에 원상 회복”, 동아일보

이명지, 2017. 3. 1, “한국 기업이 움직이는 베트남 산업지도”, 한국일보

이제훈, 2016. 7. 10, “한국경제 숨통 켜 준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 한겨레

이춘규, 2018. 1. 12, “신흥국 자동차시장 ‘쑹쑹’...인도, 독일 제치고 세계4위”, 연합뉴스

이하원, 2018. 10. 22, “아베, 평화조약 40년 맞아 訪中... ‘센카쿠 분쟁’ 6년만에 화해 무드”, 조선일보

임상균, 2012. 8. 20, “일본 희토류 수입 中비중 49%로 낮춰”, 매일경제

정영오, 2017. 9. 11, “중국 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한국 기업들 속속 철수”, 한국일보

조기원, 2018. 4. 15, “중-일 관계 개선 본격화 궤도, 고위급 경제대화 8년 만에 재개”, 한겨레

채성진, 2018. 5. 12, “롯데마트, 상하이 점포 53개도 매각”, 조선비즈

최지영, 2018. 7. 19, “LG화학, 중국에 2조 투자 ...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중앙일보

하만주, 2015. 11. 26, “인도 ODA 규정 수정, 한국 인프라 사업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하주희, 2017. 3. 13 “‘차이나 플러스 원’을 넘어서라”, 주간조선

2013. 6. 13, 新日鉄住金、中国に車用鋼板の新工場 日本勢増産で, 日本経済新聞

2018. 7. 25, “Samsung beats Xiaomi as top smartphone vendor in India in Q2 2018: Counterpoint”, The Indian Express

####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연구소(ESRI), <http://www.esri.cao.go.jp>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http://www.stats.gov.cn>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OECD, <https://stats.oecd.org>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8년 41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1월 15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